

尙州大杓里窯址 陶磁片 研究

張 東 哲*

I. 머리말
II. 大杓里窯址 陶磁片의 특징과 제작 시기
III.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와 大杓里窯址
IV. 大杓里窯址를 통해 본 上品磁器所의 性格
V. 맺음말

I. 머리말

『世宗實錄』 「地理志」 (이하 『世志』)는 1424년-1432년에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454년 『世宗實錄』의 편찬과 함께 그 부록으로 간행되었다.¹ 이 지리지에는 8道の 磁器所와 陶器所가 각각 139곳과 185곳이며 上·中·下의 품질 표시가 있어 15세기 초의 요업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자기소 연구는 자기소와 도기소에서는 품질에 따라 어떤 종류의 그릇을 생산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품자기소는 12곳, 하품자기소는 13곳이 조사되었으며 1400년-1430년경의 象嵌·印花·귀얄粉靑沙器가

* 문화재청 김해국제공항 문화재감정위원

¹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1)」, 『歷史學報』 第69輯(歷史學會, 1976), pp.66-83.

생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²

또한 중하품자기소에서 일부 백자가 제작된 것이 밝혀졌으나³ 도기소는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⁴ 상품자기소는 총 4곳으로 경기도의 1곳과 경상도의 1곳이 조사되었다 표1. 경기도는 廣州의 樊川里窯址에서 확인된 象嵌·印花기법의 분청사기, 갑발에 붙은 白磁片 등과 世宗 7년(1425)의 白磁 精細鑄造기록을 제시하여 변천리를 上品磁器所로 본 후 제작활동 시기는 1425년-1440년경으로 추정하였다.⁵ 경상도는 高靈의 箕山洞을 상품자기소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유물의 양상은 알 수 없다.⁶ 다만 高靈白磁에 관한 기록을 통해 高靈

2 충청도는 중품자기소 4곳, 하품자기소 5곳이 확인되었다. 姜敬淑,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忠清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pp.26-33 참조. 전라도는 중품자기소 3곳, 하품자기소 4곳이 확인되었다. 金英媛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朝鮮時代 粉青·白磁 窯址-』(國立全州博物館, 1997), pp.371-372 참조. 경상도는 중품자기소 5곳, 하품자기소 4곳이 확인되었다. 權丙卓, 『傳統陶磁의 生産과 需要』(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pp.237-238; 鄭良謨, 『경남지역 도요지 조사보고-河東郡을 중심으로-』(國立慶州博物館 1985), pp.7-17; 姜敬淑, 『粉青沙器研究』(一志社, 1986), pp.316-323; 威德大學校博物館·蔚山大學校 博物館, 『蔚山彦陽 磁器所 地表調査 報告-蔚州郡 三同面 荷峯里 陶窯址-』(2000), pp.16-33; 朴敬子, 「14세기 康津磁器所의 해체와 窯業체계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8·239 合輯 (한국미술사학회, 2003), p.125; 成炫周, 「泗川市 昆陽面 松田里 蒲谷窯址의 性格檢討」, 『博物館研究論集』 9 (釜山市立博物館, 2002), pp.161-181; 忠北大學校博物館, 『충북지방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1993), pp.42-47; 中央文化財研究院, 『永東 沙夫里·老斤里 陶窯址』(2003), pp.12-124; 國立晉州博物館,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2004), pp.12-53 참조

3 전라도는 扶安縣 甘佛里 중품자기소인 現 全羅北道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 牛新마을에서 정교한 고급백자와 백토로 만든 匣鉢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급백자는 일시적으로 왕실이나 관청 납품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別鑄品으로 보았다. 또한 泰仁縣 水若洞 하품자기소인 現 전라북도 井邑市 瓮東面 飛鳳里 水若洞에서 少量의 백자편이 확인되었다. 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70-74; 강원도는 楊口縣 長坪 중품자기소로 추정된 松峴里 5호 요지에서 磁化가 안 된 ‘禮齊寺銘 백자접시편이 확인되었다.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楊口郡 『楊口 丸山の 陶窯址』(2001), pp.146-148; 경기도는 廣州牧所山 하품자기소로 추정된 牛山里 2호 窯址에서 ‘內用銘 백자접시편이 확인되었다. 崔健 외,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海剛陶磁美術館·天真庵聖域化委員會, 1995), pp.45-57. 김영원선생은 ‘內用銘 백자접시편을 회백색 태토에 고려청자 계통의 청자유가 입혀져 있어 조선청자의 한 특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金英媛, 앞의 책(2003), p.80 참조. 이러한 중하품자기소 백자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도기소에서는 陶器를 제작했다는 것과 粉青沙器를 제작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도기는 瓦器·缸·甕 등으로 구분하였다. 姜敬淑,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研究』 237 (한국미술사학회, 2003), p.79 참조. 다음으로 경상도와 충청도 도기소에서 분청사기가 제작된 예를 제시하였다. 경상도는 陝川郡의 하품도기소에서 陝川長興軍 銘 印花粉青沙器壺가 확인되었고, 충청도의 하품도기소로 추정되는 城北洞과 사기막리에서 수습된 象嵌粉青沙器와 印花粉青沙器가 확인되었다. 金英媛, 앞의 책(2003), p.85 참조. 이러한 도기소에 관해서도 중하품자기소 백자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강경숙선생은 변천리요지를 ‘변천분청 2호’로命名했으며 갑발은 질이 높은 백자 전용임을 강조하고 1425년 왕실에 바친 백자를 생산한 요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姜敬淑, 앞의 논문(2003), pp.84-85 참조.

6 姜敬淑, 앞의 책(1986), p.338 참조.

6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研究

표 1 『世宗實錄』 「地理志」 上品磁器所 추정 지역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		추정 지역	
1	京畿道	廣州牧 州東 伐乙川	京畿道	廣州市 中部面 上樊川2里 內谷 (안골)
2	慶尙道	高靈縣 縣東 曳峴里	慶尙北道	高靈郡 星山面 箕山洞
3	慶尙道	尙州牧 中牟縣 縣北 柳縣里	慶尙北道	尙州市 牟西面 大杓里 (본 논문)
4	慶尙道	尙州牧 中牟縣 縣東 已未隈里	慶尙北道	未調査

縣의 상품백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⁷

따라서 상품자기소에서는 질이 높은 백자가 제작되어 왕실에 바쳤다고 이해된다.⁸ 그러나 조사된 두 곳의 백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분청사기의 貢納에 관한 내용도 알 수 없다. 또한 경상도의 尙州지역 상품자기소 두 곳의 연구가 없어 상품자기소의 전체 성격이나 지역별 성격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大杓里窯址에서 收拾한 도자편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헌자료를 참고로 大杓里窯址의 『世志』 尙州牧 中牟縣 柳縣里 上品磁器所일 가능성과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표리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의 특징을 살펴보고 편년자료와 비교하여 제작 시기를 比定하였고, 窯址의 方位에 주목하여 문헌자료를 참고로 『世志』 尙州牧 中牟縣 柳縣里 上品磁器所가 대표리일 가능성을 살피고자 하며, 대표리요지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와 백자의 특징을 참고로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파악해 보겠다.

논문의 연구대상 자료는 지표수습의 陶磁片으로 한계가 있으나 『世志』 경상도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⁷ 세종 24년(1442)부터 6년 동안 고령현감을 지낸 金淑滋와 세종 27년(1445) 고령현을 방문한 都巡察使 金宗瑞에 관한 내용을 통해 고령의 백자가 廣州白磁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金英媛 앞의 책(2003), p.63 註 13과 p.64 註 14 재인용.

⁸ 廣州, 高靈 두 곳과 尙州지역 두 곳의 상품자기소도 동일하게 보았다. 姜敬淑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당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60과 金英媛 앞의 책(2003), pp.64-65 참조



도1 大杓里窯址 全景



도2 大杓里窯址 陶磁片 분포 상태

II. 大杓里窯址 陶磁片의 특징과 제작 시기

1. 大杓里窯址의 위치 및 현상

대표리요지의 위치는 尙州市 牟西面 大杓 2里 499번지인 모서초등학교 대류분교 자리이다.⁹ 요지는 학교 뒤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¹ 유물의 산포범위가 넓고 다량의 燒土·粉靑沙器片·匣鉢·陶枕 등이 확인 된다².

2. 大杓里窯址 陶磁片의 특징

대표리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은 크게 분청사기와 백자이다. 분청사기는 기법별로 象嵌·印花·귀얄·無文의 灰靑沙器 등이며 백자는 무문백자와 음각백자 등이 있다.

1) 粉靑沙器

(1) 象嵌

상감기법은 蓮唐草文·草文·重圈文 등으로 少量 수습되었다. 연당초문은 고려시대 象嵌靑磁에 그 전통이 있다. 편년자료인 <靑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점>³은 內面은 4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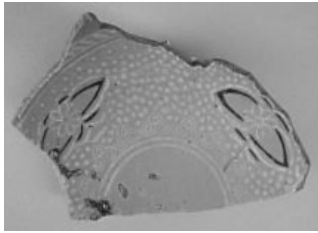
⁹ 대류분교 앞 校碑에는 1962년 6월 1일에 開校하였으며 1999년 3월 1일 閉校되었다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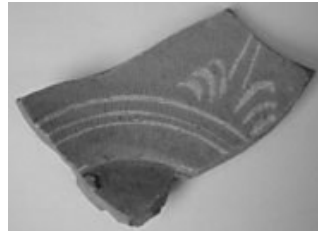
도3 靑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
대접, 국립중앙박물관(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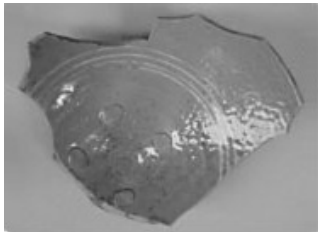
도4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
대접, 호림박물관(우)



도5 粉靑象嵌蓮唐草文대접편,
대포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좌)



도6 粉靑象嵌草文대접편,
대포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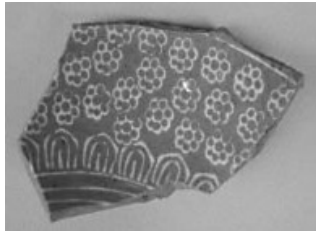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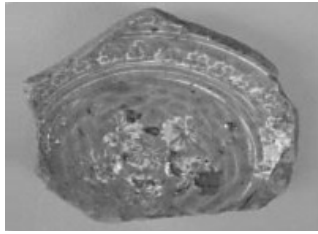


도7 粉靑象嵌重圈文대접편,
대포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좌)



도8 灰靑沙器 접시·대접편,
대포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우)

구성하였고 蓮花文과 唐草文을 흑백상감하였으며 外面은 草文과 蓮瓣文帶 사이에 연화문과 二重圓圈 내에 국화를 施文하였다.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도4은 내면은 <正陵銘대접>의 4단 구성이 2단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화문과 당초문은 도식화되었다. 외면에는 上下重圈文 사이에 雷文이 시문되었다. 대포리의 <粉靑象嵌蓮唐草文대접편>도5은 내면은 <恭安銘대접>과 같이 2단으로 구성되었고 2葉의 연화문과 당초문이 변형된 雨點文이 흑백상감되었다. 그러나 외면에는 上下重圈文 사이에 한 송이의 국화를 등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이점을 보인다. <草文대접편>도6과 <重圈文대접편>도7은 내면에 초문과 중권문이 白象嵌 되었었고 외면에는 문양이 없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내외면이 無文이며 회청색을 띤 <灰靑沙器 접시·대접편>도8이 있다. 이러한 초문, 중권문, 회청사기 등은 연당초문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도9 粉靑印花六圓文대접편
대표리요지수습,
개인소장(좌)

도10 粉靑印花八圓文대접편,
대표리요지수습,
개인소장(우)



도11 粉靑印花菊花文접시편,
대표리요지수습,
개인소장(좌)

도12 粉靑印花菊花文恭安府銘
접시,
부산대학교박물관(우)



도13 粉靑印花集團連圈菊
花文 대접·접시·
盒片,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

(2) 印花

가. 單獨 印花文

상감기법과는 달리 1개의 개체인 圖章으로 찍는 방법으로 六圓文, 八圓文, 菊花文 등이 있다. <六圓文대접편>도9은 내면에는 上下 重圈文 사이에 六圓文帶가 시문되었고 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이러한 6원문은 고려시대 상감청자 구름문의 변형으로 보고 있다.¹⁰ <八圓文대접편>도10은 내면에는 花文인 8원문이 뾰뾰이 시문되었고 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菊花文접시편>도11은 내면의 바닥과 측면에 국화문대가 시문되었고 외면에는 重圈文이 있다. 이러한

¹⁰ 姜敬淑, 「燕岐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 -문양분석과 제작시기 시도-」, 『美術史學研究』 197(한국미술사학회, 1993), pp.20-21 참조.

¹¹ 朴敬子, 앞의 논문(2003), p.140 참조.



도14 貞昭公主墓出土 粉青印花集團連圈菊花文四耳壺, 국립중앙박물관(좌)
 도15 粉青印花集團連圈菊花文德寧府銘대접, 국립중앙박물관(우)



도16 粉青귀얄문호편,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

도17 溫寧君墓出土 粉青귀얄문호,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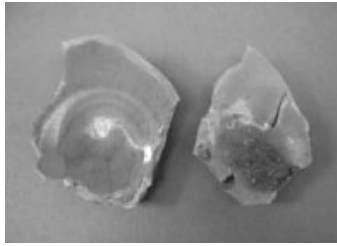
특징의 접시는 편년자료인 <粉青印花菊花文恭安府銘접시>도12에 잘 나타나 있다.

나. 集團印花文

4개, 6개, 8개의 菊花가 하나의 連圈을 이룬 도장으로 찍는 방법으로 3-4段으로 구성된 내외면 가득 시문한 것이 특징이며 대표리요지에서 가장 많이 수습되었다. 器種은 <대접·접시·盒片> 등이다도13. 편년자료로 貞昭公主墓에서 출토된 <四耳壺>도14와 <德寧府銘대접>도15이 있다.

(3) 귀얄

귀얄분청사기는 少量 수습되었다. <귀얄문호편>도16은 내·외면에는 백토귀얄로 粉裝되었으며 口緣部가 좁은 호로 추정된다. 테토는 치밀하지 못하다. 편년자료로 溫寧君墓에서 출토된 <壺>도17를 들 수 있다.



도18 무문백자대접편
대표리요지수습,
개인소장



도19 白磁陰刻牡丹文대접편 대표리요지수습, 개인소장



도20 白磁陰刻牡丹文龕
국립중앙박물관

2) 白磁

백자는 無文과 陰刻 기법의 두 종류이며 器種은 대접이다. <무문백자대접편>도18은 백자태토에 靑色釉藥을 입혔다. 태토는 치밀하며 그릇 전면에 빙결이 있다. 굽바닥에는 모래를 받쳤다. 이 <무문백자대접편>은 IV章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음각백자대접편>도19은 기벽이 얇으며 牡丹文을 내·외면에 세련된 솜씨로 施文하였다. 편년자료는 江原道 金剛郡 內剛里에서 발견된 “景泰2년(1451)”銘 金銅阿彌陀三尊佛과 함께 수습된 <白磁陰刻牡丹文龕>도20으로¹² 함의 뚜껑에는 큼직한 모란을 몸통에는 花文과 새를 서툰 솜씨로 음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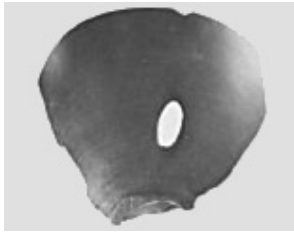
3) 窯道具

요도구는 匣鉢과 陶枕 등이며 갑발은 多量으로 확인되었다. 갑발은 인화분청사기를 燻造時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자를 번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 <鉢形匣鉢片>도21은 內底에는 지름6.5cm의 圓刻이 있으며 내화토를 다져 넣었다. 안쪽 측면에 ‘金銘이 새겨져 있는

¹² 불상의 내부에서 “景泰 2년(1451)”이 적혀 있는 發願文이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2006), pp.126-129 참조.



도21 鉢形 匣鉢片,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좌)
도22 透孔 匣鉢片,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우)



도23 透孔 匣鉢片, 樊川里窯址 수습(좌)
도24 透孔 匣鉢片, 松亭里窯址 수습(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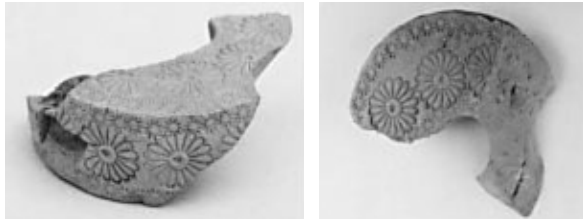
도25 透孔 匣鉢片,
龜城里窯址 수습(좌)
도26 陶枕,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우)

데 당시 匠人으로 추정된다. <透孔 匣鉢片>도22은 내저에는 지름 6.9cm의 圓刻이 있으며 내화토를 다져 넣었다. 외면에는 지름 2.4cm의 透孔이 있다. 이러한 투공 갑발은 상품자기소인 廣州 樊川里^{도23, 13} 중품자기소인 燕岐 松亭里^{도24¹⁴}와 하품자기소인 谷城 龜城里^{도25¹⁵}에서 확인된다. 그릇을 넣은 갑발에 투공한 것은 제품의 완성도와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나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陶枕>도26은 높이 10cm의 원통형과 지름 19.5cm의 원반형이 있다.

¹³ 姜敬淑, 앞의 책(1986), p.100 참조.

¹⁴ 姜敬淑, 『한국도자기 가마터 연구』(시공사, 2005), p.318 참조.

¹⁵ 透孔이 없는 갑발은 높이가 7.8-10.3cm이며, 투공이 있는 갑발뚜껑은 높이가 5.4-6.9cm이다. 韓盛旭 외, 『谷城 龜城里陶窯址』(全南文化財研究院, 2005), pp.111-112 참조.



도27 陶范片,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

4) 陶范

陶范은 圓形의 硯筒 모양이며 그릇에 문양을 찍는 도구로 上面, 下面, 側面에 크고 작은 국화문양이 있어 찍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도27}.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고려시대 청자에 문양을 찍는 도범은 있으나 분청사기에 문양을 찍는 도범의 예는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3. 大杓里窯址 陶磁片의 제작 시기

대표리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 시기는 문양양식과 편년자료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분청사기는 기법별로 象嵌·印花·귀얄·無文의 灰靑沙器 등이다. 연대 추정이 가능한 문양은 상감기법의 蓮唐草文으로 1420년이 하한인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의 예로^{도4} 강경숙선생은 연당초문이 생략되면서 당초문이 草文·重圈文·無文으로 변했으며 六角瓣文·圓文 등의 인화기법으로 변형된다고 보고 있다.¹⁶ 따라서 대표리의 상감기법인 蓮唐草文·草文·重圈文과 無文의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는 1420년을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화기법은 먼저 단독국화문으로 1420년이 하한인 〈粉靑印花菊花文恭安府銘접시〉의 예도¹²에서 찾을 수 있다. 내면에는 성긴 국화문대를 외면에는 雷文을 시문한 접시로 대표리의 〈六圓文대접편〉^{도9}과 〈국화문접시편〉^{도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리의 6원문과 국화문은 상감기법에서 인화기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며 제작 시기는 1420년경으로 볼 수 있다. 집단국화문은 단독국화문에 비해 문양이 더욱 조밀해진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1424년이 하한인 貞昭公主墓에서 출토된 〈粉靑印花集雲蓮圈菊花文四耳壺〉^{도14}는 외면에 4

¹⁶ 姜敬淑, 앞의 논문(1993), pp.20-21 참조.

개의 국화가 하나의 連圈으로 구성된 圖章으로 6단에 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1457년의 하한인 예는 <粉靑印花德寧府銘集團連圈菊花文대접>도15이 있다. 6개의 국화가 하나의 連圈으로 구성된 圖章으로 내·외면에 시문하였다. 대표리의 대접·접시·합뚜껑에는 8개의 국화가 하나의 連圈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도13. 따라서 대표리의 집단국화문 대접·접시·합뚜껑의 제작 시기는 1424년부터 1457년까지로 比定할 수 있다. 귀얄문은 1454년이 하한인 溫寧君墓 출토 <粉靑귀얄문壺>도17가 있다. 대표리의 <粉靑귀얄문壺片>도16은 완전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粗質의 태토에 백토가 분장되어 있다.

대표리의 백자는 무문과 음각의 두 종류이다. 무문백자의 편년자료는 없으나 음각백자는 “景泰 2년(1451)”의 연대가 있는 <白磁陰刻牡丹文龕>도20으로 보아 대표리의 <白磁陰刻牡丹文대접편>도19의 제작 시기는 1450년경으로 比定할 수 있으며 무문백자는 이보다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표리의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 시기는 1400년-1450년대로 比定할 수 있다. 상감분청사기, 회청사기, 단독인화문 분청사기 등은 1400년-1420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집단인화분청사기와 귀얄분청사기는 1424년-1457년까지로 비정되는데 1451년의 명문 음각백자의 예에 따라 1420년경-1450년대로 추정하였다.

III.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와 大杓里窯址

本章은 『世志』 尙州牧 中牟縣 榭縣里 上品磁器所가 대표리일 가능성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中牟縣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中牟縣은 본래 신라의 刀良縣인데, 경덕왕 때 道安으로 고쳐서 化寧郡에 붙였다. 고려 때에는 다시 中牟縣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⁷ 『韓國地名總覽』에는 “中牟縣은 본래 신라의 刀良縣인데, 제35대 경덕왕 때 道安으로 고쳐서 化寧郡에 붙였다. 고려 현종 9년(1018)에는 中牟縣에 붙였으며 조선조 때 牟東, 牟西의 2개면으로 되어 현재에 이른다.”라는 기록이 있다.¹⁸

榭縣里는 『世志』에 尙州牧 中牟縣 縣北 榭縣里 上品磁器所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尙州牧 中牟縣과 中牟倉은 현재의 牟東面 龍湖里에 있고 지도¹⁹ 추현리는 중모현 북쪽에

¹⁷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8 尙州牧條, 中牟縣, 本刀良縣, 景德王改名道安, 爲化寧郡鎭縣, 高麗改今名

¹⁸ 『한국지명총람』 5(한글학회, 1978), p.189 및 pp.214-215 참조.



지도1 尙州牧 中牟縣과 中牟倉



지도2 大杓里窯址 현위치

위치하며 현재는 용호리의 북쪽에 해당된다. 용호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분할해 보았을 때 대표리는 중모현의 동쪽보다 북쪽에 가깝게 있으며지도2 앞서 살펴본 1400년-1450년대의 분청사기, 백자 등의 양상으로 보아 이곳이 추현리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추현리 상품자기소와 관련한 연구에 의하면 추현리 상품자기소가 중모현의 북쪽에 있음을 제시하여 於山里窯址로 추정하였다.²⁰ 그러나 어산리는 조선시대에 化寧縣에 속했으며²¹

¹⁹ 曹喜烈, 『尙州地名總覽』(尙州文化院, 2003), p.631 참조

²⁰ 어산리요지와 인접한 돌적갈에서 백토가 출토된 예를 들어 백토를 어산리요지에 충분히 공급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유물에 관한 언급은 없다. 金世光, 『尙州의 陶磁生産과 窯址』(尙州文化院, 1998), pp.118-122 참조.

²¹ 『新增東國輿地勝覽』 卷²⁸ 尙州牧條, 化寧縣, 本新羅沓達比縣郡, 景德王改化寧郡, 高麗因之後改爲縣.

현재는 化東面에 있다.²² 또한 어산리요지에서는 1400년-1420년경의 상감기법과 초보적인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확인되어²³ 『世志』 조사기간인 1424년에서 1432년까지의 시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산리는 중모현의 상품자기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IV. 大杓里窯址를 통해 본 上品磁器所의 性格

1. 白磁 製作

앞서 살펴본 것처럼 上品 磁器所로 추정된 廣州牧의 伐乙川(現 樊川里)과 尙州牧 柘縣里(現 大杓里)에서 백자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변천리와 대표리의 백자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1) 樊川里 백자

‘변천분청 2호 요지’에서는 匣鉢 내의 〈白磁口緣部片〉도²⁸이 확인 되었다.²⁴ 강경숙선생은 변천리에서는 백자만을 감발에 넣어 번조하였고 良質이므로 1425년 明나라의 사신에게 주었던 백자가 변천리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필자도 실견을 통해 감발뚜껑에 태토가 치밀하며 푸른기가 약간 있는 경질백자편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변천리에서 양질의 백자가 1425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그릇 전체의 형태나 받침법을 알 수 없어 백자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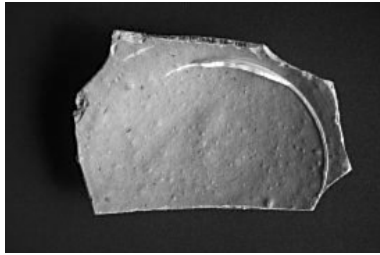
‘변천분청 2호 요지’와 같은 지역인 내곡으로 2km 떨어진 곳인 ‘변천분청 1호 요지’²⁵에서 백자접시에 重圈文이 象嵌된 분청사기가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²⁹. 강경숙선생은 붙어 있는 분청사기와 백자는 육안상 유약은 같고 태토가 다르다고 보았으며 백자의 제작 시기를 1430년대-1440년경으로 추정하였다.

²² 曁喜烈, 앞의 책(2003), p.108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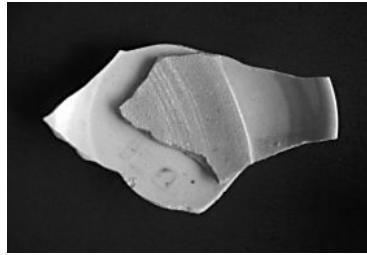
²³ 姜敬淑, 앞의 책(1986), pp.360-366 참조.

²⁴ ‘변천분청 2호 요지’는 변천리 11호와 17호 사이에 있으며 강경숙선생이 새롭게 조사한 곳이다. 姜敬淑 앞의 논문(2003), pp.82-8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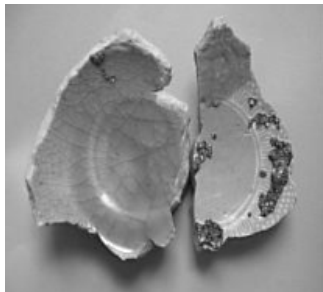
²⁵ ‘변천분청 1호 요지’는 변천리 10호, 20호, 21호이다. 姜敬淑 앞의 논문(2003), pp.81-84 참조.



도28 갑발에 붙은 백자구연부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내곡(안골) '변천분청2호요지' 수습,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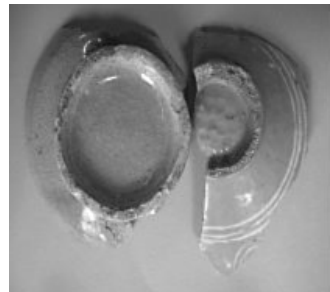
도29 백자접시에 붙은 상감분청사기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변천리 '변천분청1호요지' 수습, 개인소장



① 전면 빙렬



② 청색 유약



③ 굽바닥모래받침

도30 대표리 <白磁片・象嵌粉靑沙器片>比較,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

2) 大杓里 백자

대표리에서도 <무문백자대접편>도18이 확인되었다. 치밀한 백자태토에 청자 유약을 입혔다. 그릇 전면에는 빙렬이 있고 굽바닥에는 모래받침을 하였다. 대표리의 <백자편>과 연당 초문이 시문된 <상감분청사기편>도30은 '변천분청 1호 요지'의 예와 같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태토의 차이가 있을 뿐 몇 가지의 유사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첫째, 내면에 받침흔적이 없고 전면에 빙렬이 있다도30-①. 둘째, 청색 유약이 0.2cm로 두껍다도30-②. 셋째, 굽바닥에 모래를 받친 점 등이다도30-③. 이는 백자와 분청사기가 肉眼으로 보았을 때 유약은 같고 태토는 다를 뿐이다. 따라서 상감분청사기와 백자는 동일 가마에서 번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백자의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공주대학교 고고화학연구실에 2점의 도자편의 분석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²⁶

표 2 대표리 도자편 2점 색도 측정결과

窯址	구분	단위(%)	
		명도	채도
대표리 상감분청사기		63.43	0.89
扶安 柳川里, 鎭西里靑磁		65.0~65.4	
대표리 백자		75.24	-1.08
廣州 分院里 백자		83.99	-0.78

표 3 대표리 도자편 2점 태토 분석결과

窯址	구분	단위(%)	
		산화철 (Fe ₂ O ₃)	산화티탄 (TiO ₂)
대표리 상감분청사기		2.5	0.73
廣州 建業里 2호 청자		2.0 이하	1.2 이하
대표리 백자		1.7	0.14
廣州 牛山里 9호 백자		1.66	0.10

(1) 色度

明度는 白色도와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백색도가 높을수록 명도값이 크게 측정된다. 대표리 분청사기는 扶安 柳川里와 鎭西里靑磁의 명도값과 비슷하다. 대표리 백자의 명도는 廣州 分院里 백자에 비해 낮으나 청자에 비해 높은 백색도이다. 彩度는 청자가 (+)이나 백자는 (-)로 측정된다. 따라서 대표리 백자는 백자태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2}.

(2) 胎土

청자와 백자의 태토 구분은 산화철(Fe₂O₃)과 산화티탄(TiO₂)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청자는 백자에 비하여 함량이 높은 편이다.²⁷ 대표리의 백자와 牛山里 9호 백자의 산화철(Fe₂O₃)과 산화티탄(TiO₂) 함량이 대표리 분청사기와 建業里 2호 청자에 비해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표리의 백자는 백자태토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표3}.

(3) 釉藥

조선 청자의 유약은 백자에 비하여 산화티탄(TiO₂), 산화망간(MnO), 산화인(P₂O₅) 성분이 높다.²⁸ 이와 같은 기준으로 대표리 분석 도자편을 구분하면 산화티탄(TiO₂)은 낮은 함량으로 백자에 가까운 편이나 산화망간(MnO), 산화인(P₂O₅) 성분은 높은 편으로 청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표4}.

²⁶ 이번 2점의 도자편 분석을 해주신 공주대학교 김규호 선생님, 고민정, 전유리 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²⁷ 김영미, 「朝鮮時代 官窯 靑磁 硏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9 참조

²⁸ 牛山里 9호 백자는 산화망간 0.05% 이하, 산화인 0.27% 이하인 것에 비해 청자는 산화망간 약 0.2%, 산화인 약 0.9% 정도로 청자의 산화망간과 산화인은 백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영미, 앞의 논문(2004), p.7 참조.

표 4 대포리 도자편 2점 유약 분석결과

窯址	구분	단위(%)		
		산화티탄(TiO ₂)	산화망간(MnO)	산화인(P ₂ O ₅)
대포리 상감분청사기		0.06	0.16	0.54
대포리 백자		0.08	0.26	0.74
建業里 2호 청자			0.2~0.25	0.52~0.7
牛山里 9호 청자			0.2	0.9
建業里 2호 백자			0.02~0.13	0.04 이하
牛山里 9호 백자		0.08	0.05 이하	0.27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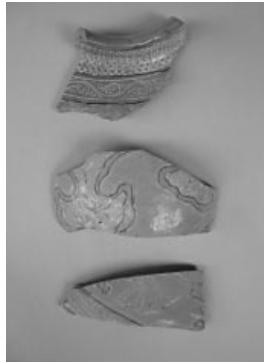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대포리 백자는 색도·태토 등의 분석을 통해 백자태토임이 확인되었다. 유약은 대포리 분청사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시대 청자 유약과 백자 유약의 비교를 통해 청자 유약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포리 백자는 백자태토 위에 청자 유약을 입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대포리의 상감분청사기와 백자는 同一 유약을 施釉한 조건에서 燒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粉靑象嵌蓮唐草文대접〉의 제작 시기가 1420년이 하한이므로 백자도 동일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2. 王室用 粉靑沙器 製作

龍文樣은 왕실에서만 사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⁹ 대포리에서는 〈粉靑象嵌印花龍文壺片(이하 대포리 용문호편)〉^{도31}이 발견되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국보 제259호인 〈粉靑象嵌印花龍文壺(이하 국박 용문호)〉^{도32}와 상당히 유사하여 주목된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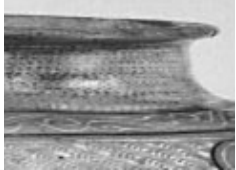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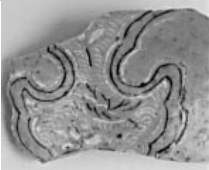


1) 口緣 外面: 〈국박 용문호〉^{도33-①}는 목 부분에서 차례로 印花技法의 集團菊花文, 象嵌技法의 唐草文과 波壽文 등을 施文하였다. 〈대포리 용문호편〉^{도33-②}에서도 시문기법이 동일하다.

²⁹ 용의 발톱 수에 따라 구분되는데 왕의 袞龍袍에는 五爪圓龍, 王妃의 禮服에는 五爪圓龍이 있다. 世子의 衾龍袍와 世子嬪의 衣복에는 四爪圓龍이 있다. 『國朝續五禮義補』,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도31 粉靑象嵌印花龍文壺片,
대표리요지 수습, 개인소장(좌)

도32 粉靑象嵌印花龍文壺,
국립중앙박물관(우)

구분 내용	〈粉靑象嵌印花龍文壺〉, 국립중앙박물관	〈粉靑象嵌印花龍文壺片〉, 대표리요지
口緣 外面		
	도33-①	도33-②
口緣 內面		
	도33-③	도33-④
몸통 上部		
	도33-⑤	도33-⑥
몸통 下部		
	도33-⑦	도33-⑧
도33 국립중앙박물관 〈粉靑象嵌印花龍文壺〉와 대표리 〈粉靑象嵌印花龍文壺片〉比較		

2) 口緣 內面: 〈국박 용문호〉도33-③는 인화기법의 집단국화문을 시문하였고 〈대포리 용문호편〉도33-④에서도 동일한 시문기법이 확인된다.

3) 몸통 上部: 〈국박 용문호〉도33-⑤는 如意頭文의 윤곽선을 黑白象嵌하였으며 그 안과 밖에는 파도문을 象嵌하였다. 〈대포리 용문호편〉도33-⑥은 여의두문의 윤곽선은 흑상감하였으며 그 안에만 파도문을 상감한 차이점이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상감기법의 용문호와 상감·인화기법의 용문호가 각각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몸통 下部: 〈국박 용문호〉도33-⑦는 용의 모습과 그 아래에 唐草文帶를 상감하였다. 용의 갈퀴, 四爪의 발톱, 구름 등은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대포리 용문호편〉도33-⑧은 구도가 같으며 四爪의 발톱, 구름의 표현, 당초문대도 동일하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통해 문양의 구도, 표현기법 등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박 용문호〉가 대포리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포리에서는 상감기법의 〈용문호〉와 상감·인화기법의 〈용문호〉 등의 두 종류의 호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포리에서 제작된 〈용문호〉를 왕실용으로 공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포리 용문호〉의 생산지와 관련된 太宗 11년(1411)의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다.

『太宗實錄』卷21, 11年(1411) 4月 己未條 “遣內暨安和尚 于慶尙道中牟化寧等縣 監做花器” “內暨 安和尚을 慶尙道 中牟·化寧 등의 縣에 보내어 花器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왕실에서 관리자를 직접 中牟縣에 파견한 것은 왕실용의 花器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모현에 2곳의 상품자기소가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세종 당시 중모현의 상품자기소인 현 대포리요지에서 〈용문호〉를 제작하여 왕실에 공납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大杓里窯址에서 收拾한 陶磁片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헌자료를 참고로 大杓里窯址가 『世志』 尙州牧 中牟縣 柳縣里 上品磁器所일 가능성과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대포리의 도자편은 象嵌·印花·귀얄기법 등의 분청사기와 無文白磁 陰刻白磁 등이다.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시기는 문양양식, 편년자료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분청사

기는 상감기법의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1400년-1420년)〉과 인화기법의 단독국화문은 〈粉靑印花菊花文恭安府銘접시(1400년-1420년)〉의 예에 따라 대표리의 상감기법인 蓮唐草文·草文·重圈文 無文의 灰靑沙器, 인화기법의 六圓文과 菊花文은 1420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화기법의 집단국화문, 귀얄분청사기, 무문백자, 음각백자 등은 〈粉靑印花集團連圈菊花文四耳壺(1424년)〉, 〈粉靑印花德寧府銘集團連圈菊花文대접(1455년-1457년)〉, 〈粉靑귀얄문壺(1454년)〉, “景泰 2年(1451)銘” 發願文과 함께 나온 〈白磁陰刻牡丹文龕〉 등의 예에 따라 1420년경-1450년대로 추정하였다. 窯道具는 鉢形의 匣鉢이 多量 확인되어 良質의 粉靑沙器를 大量으로 제작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圓形의 硯筒 모양 陶范은 上面, 下面, 側面에 크고 작은 국화문양이 있어 찍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청사기에 문양을 찍는 도법의 예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世志』尙州牧 中牟縣 柸縣里는 中牟縣의 현 위치인 牟東面 龍湖里의 북동쪽인 대표리임을 확인하였다.

대표리에서 수습된 백자편과 분청사기편의 특징을 참고로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白磁片〉은 白磁胎土 위에 靑磁釉藥을 施釉하였으며 이 청자 유약은 〈粉靑象嵌蓮唐草文大楨片〉의 유약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대표리 〈백자편〉은 色度·胎土 등은 백자태토임이 확인되었고, 釉藥은 대표리 분청사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시대 청자 유약과 백자 유약의 비교를 하여 청자 유약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표리 〈백자편〉은 백자태토 위에 청자유약을 입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대표리의 〈상감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은 同一 유약을 施釉한 조건에서 燻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420년이 하한인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의 예에 따라 〈상감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은 142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기도 廣州牧의 上品磁器所로 추정되는 樊川里의 백자 제작 시기가 1425년임을 참고하면 1420년대에는 대표리 상품자기소에서 백자가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을 사용한 〈粉靑龍文壺片〉이 있다. 龍文은 일반적으로 왕실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문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상품자기소로 추정되는 대표리요지에서 〈용문호〉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상품자기소의 성격은 왕실공납용자기를 생산하던 자기소로 추정되며, 태종 11년(1411)에 왕실에서 특정지역인 中牟縣과 특정기명인 花器를 지목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大杓里窯址가 『世志』尙州牧 中牟縣 柸縣里 上品磁器所일

가능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헌기록을 통해 榘縣里가 현재의 대포리라는 점 들째, 1400년부터 1450년대에 걸쳐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가 수습되었고 良質의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匣鉢이 대량으로 확인된 점 셋째, 『世志』上品磁器所인 廣州, 高靈 등과 같이 尙州에서도 白磁가 생산된 것이 확인된 점 등이다. 그러나 尙州에서 粉靑沙器가 王室用으로 제작된 것은 상주지역만의 특징인지 廣州와 高靈의 상품자기소에도 해당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key words) — 世宗實錄地理志(Geography Monograph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上品磁器所 (Premium ceramic factory), 中牟縣(Jungmo-hyeon), 龍湖里(Yongho-ri), 大杓里(Daepyo-ri), 樊川里(Beoncheon-ri), 龍文壺(Dragon-patterned jar), 白磁(White porcelain)

▣ 투고일 2008년 1월 21일 | 심사일 2008년 1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0일 ▣

『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는 上品 4곳, 中品 45곳, 下品 86곳, 품질표시가 없는 4곳 등 총 139곳이 있다. 지금까지의 자기소 연구는 품질에 따라 어떤 종류의 그릇을 생산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중품자기소 12곳과 하품자기소 13곳이 조사되어 1400년-1430년경의 象嵌·印花·귀얄粉靑沙器가 생산되었으며 일부 백자가 제작된 것이 밝혀졌다. 상품자기소는 경기도의 1곳과 경상도의 1곳이 조사되었다. 경기도는 廣州의 樊川里窯址에서 확인된 象·印花기법의 분청사기, 갑발에 붙은 白磁片 등과 世宗 7년(1425)의 白磁 精細燔造기록을 제시하여 변천리를 上品磁器所로 본 후 제작활동 시기는 1425년-1440년경으로 추정하였다. 경상도는 高靈의 箕山洞을 상품자기소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유물의 양상은 알 수 없다. 다만 高靈白磁에 관한 기록을 통해 高靈縣의 상품백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품자기소에서는 질이 좋은 백자가 제작되어 왕실에 바쳤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조사된 두 곳의 백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분청사기의 貢納에 관한 내용도 알 수 없다. 또한 경상도의 尙州지역 상품자기소 두 곳의 연구가 없어 상품자기소의 전체 성격이나 지역별 성격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大杓里窯址에서 收斂된 도자편의 특징을 분석하고 편년자료와 비교하여 제작 시기를 比定하였고, 窯址의 方位에 주목하여 문헌자료를 참고로 『世宗實錄』「地理志」尙州牧 中牟縣 林縣里 上品磁器所가 대표리일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대표리요지에서 수습한 분청사기와 백자의 특징을 참고로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고찰해 보았다.

대표리의 도자편은 象嵌·印花·귀얄기법 등의 분청사기와 無文白磁, 陰刻白磁 등이다.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 시기는 문양양식, 편년자료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분청사기는 상감기법의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鎭銘대접(1400년-1420년)〉과 인화기법의 단독국화문은 〈粉靑印花菊花文恭安府銘접시(1400년-1420년)〉의 예에 따라 대표리의 상감기법인 蓮唐草文·草文·重圈文, 無文의 灰靑沙器, 인화기법의 六圓文과 菊花文은 1420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화기법의 집단국화문, 귀얄분청사기, 무문백자, 음각백자 등은 〈粉靑印花集團連圈菊花文四耳壺(1424년)〉, 〈粉靑印花德寧府銘集團連圈菊花文대접(1455년-1457년)〉, 〈粉靑귀얄문壺(1454년)〉, “景泰 2年(1451)銘” 發願文과 함께 나온 〈白磁陰刻牡丹文龕〉 등의 예에 따라 1420년경-1450년대로 추정하였다. 窯道具는 鉢形의 匣鉢이 多量 확인되어 良質의 粉靑沙器를 大量으로 제작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圓形의 硯滴 모양 陶范은 上面, 下面, 側面에 크고 작은 국화문양이 있어 찍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로 추정된다. 분청사기에 문양을 찍는 도범의 예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尙州牧中牟縣柵縣里는 中牟縣의 현 위치인 牟東面龍湖里的 북동쪽인 대표리임을 확인하였다.

대표리에서 수습된 백자편과 분청사기편의 특징을 참고로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白磁片〉은 白磁胎土 위에 靑磁 釉藥을 施釉하였으며 이 청자 유약은 〈粉靑象嵌蓮唐草文大標片〉의 유약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대표리 〈백자편〉은 色度·胎土 등은 백자태토임이 확인되었고, 釉藥은 대표리 분청사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시대 청자 유약과 백자 유약의 비교를 하여 청자유약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표리 〈백자편〉은 백자태토 위에 청자 유약을 입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대표리의 〈상감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은 同一 유약을 施釉한 조건에서 燒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420년이 하한인 〈粉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의 예에 따라 〈상감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은 142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기도 廣州牧의 上品磁器所로 추정되는 樊川里的 백자 제작 시기가 1425년임을 참고하면 1420년대에는 대표리 상품자기소에서 백자가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을 사용한 〈粉靑龍文壺片〉이 있다. 龍文은 일반적으로 왕실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문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상품자기소로 추정되는 대표리요지에서 〈용문호〉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상품자기소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상품자기소의 성격은 왕실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던 자기소로 추정되며, 태종 11년(1411)에 왕실에서 특정지역인 中牟縣과 특정기명인 花器를 지목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大杓里窯址가 『世宗實錄』「地理志」尙州牧中牟縣柵縣里 上品磁器所일 가능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헌기록을 통해 柵縣里가 현재의 대표리라는 점 둘째, 1400년부터 1450년대에 걸쳐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가 수습되었고 良質의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匣鉢이 대량으로 확인된 점 셋째, 『世宗實錄』「地理志」上品磁器所인 廣州, 高靈 등과 같이 尙州에서도 白磁가 생산된 것이 확인된 점이다. 그러나 尙州에서 粉靑沙器가 王室用으로 제작된 것은 상주지역만의 특징인지 廣州와 高靈의 상품자기소에도 해당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Ceramic Shreds from the Daepyo-ri Kiln Site in Sangju

Jang Dongcheol*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eramic shreds collected from the Daepyo-ri kiln site, and compares them with the relevant historical records in order to determine their production date. It also presents a review of the possibility that the Chuhyeon-ri premium ceramics factory site in Jungmo-hyeon, Sangju-mok, as recorded in *Geography Monograph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is the present-day locations of Daepyo-ri, to the northeast of Yongho-ri, Modong-myeon. Furthermore,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ncheong* wares and white porcelain wares collected from the Daepyo-ri kiln site, the possibility that the kiln site was a premium ceramics factory was examined.

Ceramic remains from the Daepyo-ri kiln site consist of fragments of inlaid, stamped, and brushed-slip *buncheong* wares, plain white porcelains, and incised white porcelains. On the basis of the dating of *buncheong* wares from this site such as *Bowl with Gongan Inscription* (datable to 1400-1420) and *Dish with Gonganbu Inscription* (also datable to 1400-1420), the production time was determined as prior to 1420 for the wares originating from the Daepyo-ri site, including inlaid *buncheong* wares with an lotus and arabesque design, grass design, double-circle design, and plain design, and stamped *buncheong* wares with a six-circle design and chrysanthemum design. The

* Cultural Connoisseur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Appraisal,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production time was determined as 1420-50 for stamped *buncheong* wares with a chrysanthemum-group design, brushed-slip *buncheong* wares, plain white porcelains, and incised white porcelains. These estimations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examples of *Four-eared Jar from the Tomb of Jeongso Princess* (dated 1424), *Bowl with Deongnyeongbu Inscription* (dated 1455-57), *Bottle with Brushed-slip Design* (dated 1454), and *Covered Bowl found with Prayer* (dated 1451). The presence of a large number of saggars and other tools for making ceramics was confirmed, presumably enabling the mass-production of quality *buncheong* wares. In addition, circular-shaped moulds with chrysanthemum patterns designed to imprint patterns onto *buncheong* wares were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research.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ium ceramics factories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ds of white porcelain and *buncheong* wares collected from the Daepyo-ri kiln site. First, it was determined from the samples of white porcelain shreds that a celadon glaze was applied over the white porcelain clay, and that the celadon glaze was in fact the same as that applied to the *buncheong* wares. Thus, a scientific analysis confirmed that the shreds of white porcelain collected from the Daepyo-ri area reflected the chromaticity and clay of the white porcelain, and that while the glaze was closely similar to the celadon glaze of the Joseon period. After all, it was distinctively confirmed that the shreds of white porcelain collected from the Daepyo-ri area involved the application of celadon glaze over the white porcelain cla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hreds of *buncheong* wares and white porcelain were baked with the same glaze applied in the Daepyo-ri kiln site. Thus, on the basis of *Bowl with Gonggan Inscription*, it was deemed that the shreds of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were manufactured in the 1420s. Given that 1425 was the approximate production date for white porcelain in the Beoncheon-ri area, which was presumed to be the location of the premium ceramics factory of Gwangju-mok, Gyeonggi Province, it is clear that, in the 1420s, white porcelain wares were manufactured in the Daepyo-ri premium ceramics factory.

An examination was also carried out on the shreds of *Jar with a Dragon Design*. Given that the use of a dragon design was limited to the royal palace, the fact that ceramics with a dragon design were manufactured at the Daepyo-ri kiln site suggests that the kiln site was a premium ceramics factory. Likewise, a premium ceramics factory is presumed to have manufactured ceramics to be offered to the royal palace, and this fact is supported by a record that in 1411, the

court sent officials in specific reference to the Jungmo-hyeon area and flower vases.

Bringing together all that has been discussed above, the possibility that the Daepyo-ri kiln site was in fact the premium ceramics factory as described in *Geography Monograph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can be summarized as three points. First, Chuhyeon-ri is the present-day location of Daepyo-ri if one takes into account the literature and records. Second,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s manufactured between 1400 and 1450 have been found, and a large number of saggars used for manufacturing quality *buncheong* wares has been confirmed as such. Third, white porcelains were manufactured in Sangju as well as in Gwangju and Goryeong, where premium ceramics factories were operated as described in *Geography Monograph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ascertain whether *buncheong* wares for use in the royal palace was manufactured only in Sangju, or whether it was produced in premium ceramics factories located in Gwangju and Goryeong as well.